

경전-깨달음의 길을 말한다

‘경전 수행을 통한 깨달음’ 주제 10대 강백 초청 강설대법회...당대 최고 강백들 ‘사자후’



16일부터 10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봉선사서

봉선사·本社 공동 주최

중국 선종의 제6조(六祖)인 혜능(慧能 638~713) 선사는 나무꾼이었다. 젊은 시절 나무를 팔러 시장에 나갔다가 어떤 사람이 읽는 <금강경>의 한 대목을 듣고 크게 발심하여 출가를 하게 된다. 혜능 선사에게 가사와 의발을 전한 5조 홍인(弘忍 602~675) 선사는 병풍을 둘러치고 <금강경>의 대의를 가르치고 제자를 하산시킨다. 선객들에게 몽둥이를 휘둘러 깨침의 기연(機緣)을 심어 주었던 덕산선감(德山宣鑑 780~865)은 <금강경>에 해박하여 주석서 ‘청룡소초(靑龍疏鈔)’를 지을 정도였다. 그런 그는 용담(龍潭 763~835) 선사를 찾아가 선사들이 경학을 무시하고 마음 도리만 외치는 데 대한 ‘편견’을 바로 잡아 주려다 용담 선사가 등불을 훔쳐가는 장면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혜능 선사가 유언해 들은 <금강경>의 한 대목(應無所住而生其心)은 중국 선종을 확립시키는 인연이 되었고 덕산 선사가 매진했던 <금강경> 연구는 ‘찰나에 몰락깨침’의 바탕이었다.

선과 교에 대한 오해풀기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선(禪) 밖에 없을까? 선종의 전통 속에서 교학은 ‘깨달음과 상관없는 분야’라거나 ‘깨달음에 장애가 되는 것’쯤으로 고착된 것은 아닐까?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말과 “교를

버리고 선에 든다(捨教入禪)”는 말이 ‘교학은 언젠가는 버려야 할 것’쯤으로 오해시켜 온 세월이 참으로 길다.

부처님의 심인(心印)을 받은 가섭의 법도 아닌 존자가 부처님의 일대 시교(一代時教)를 고스란히 암송해 넘으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가섭의 염화미소나 아난의 경전 결집은 똑같이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한 소식’임을 명쾌히 밝혀주는 대형 법회가 마련된다.

‘경전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주제로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월안)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해월)가 ‘10대강백 초청 강설대법회’를 봉행한다.

9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봉선사 청풍루에서 열리는 강설대법회는 우리나라 최고의 강백 열 분이 강전을 주제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열어 보이는 자리다. 전통강원에서 이력을 마치고 중강 강사 강주를 지낸 원로급 강백들이 하나의 경전을 주제로 강설하고 이어 미리 정해진 스님과 학자가 청중을 대표해 질의해 청중들의 안목을 밝힌다.

특히 이번 법회의 주제가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이란 점에서, ‘과연 경전공부를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강백 스님들이 어떻게 풀어 줄지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살계 수계로 ‘회향’

9월 16일 입제법회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에 녹아 흐르는 깨달음의 세계를 펼쳐 보인다. 질의에는 동국대 정각원장 진철 스님과 한국불교학회장 이평래 교수(충남대)가 나선다. (일정표 참조)

■ 강설대법회 일정표

일정	강백	주제경전	질의자
9월 16일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금강경	진원 스님 / 이평래 교수
9월 23일	의룡 스님(前 직지사 강주)	육조단경	정원 스님 / 서재영 교수
9월 30일	해남 스님(통도사 울주)	화엄경	성관 스님 / 권탄준 교수
10월 14일	응각 스님(수덕사 강주)	아함경	현봉 스님 / 박경준 교수
10월 21일	지안 스님(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열반경	월호 스님 / 황수경 교수
10월 28일	각성 스님(화엄학연구원장)	해심밀경	명범 스님 / 안성두 교수
11월 4일	백운 스님(前 범어사 강주)	법화경	해조 스님 / 이재수 교수
11월 11일	우룡 스님(울산 화성선원장)	정토삼부경	화랑 스님 / 송재근 교수
11월 18일	통광 스님(생계사 승가대학장)	원각경	수경 스님 / 석길암 교수
11월 25일	월운 스님(봉선사 주석)	능엄경	진원 스님 / 정진원 연구원
11월 25일	무관 스님(해인총림 울원장)	보살계수계식	인례: 해만 스님 / 영명 스님

매주 토요일 오후 2-5시/봉선사 청풍루

11월 25일 회향법회에서는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의 <능엄경> 강의를 이어 해인총림 울원장 무관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보살계를 수계함으로써 전체 일정을 마무리한다. 수계법회는 입제 때부터 접수를 받아(접수비 3만원) 강설대법회 전체가 하나의 수계절차라는 의미도 갖는다. 봉선사 주지 월안 스님은 “이번 강설법회는 경전을 통해 깨달음의 길을 추구하는 수행과정”이라며 “열반의 강설법회가 끝난 후에도 경전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정진해 나가겠다는 발원을 담아 수계법회를 봉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봉선사는 조선시대부터 교종분찰로서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근현대에 이르러서는 윤허 스님과 월운(현재의 조실) 스님의 강백과 역경의 원력이 담겨 있는 유서깊은 사찰이다. 특히 능엄학림에서는 지난달 전통 논각법에 의한 특강을 마련해 주목받기도 했다.

2004년 조계사에서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선원장 초청법회’를 시작으로 지난해 3-5월 범어사에서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선사 초청 설선대법회’를 개최하고 이어 8-10월 ‘깨달음으로 가는 길, 동화사 계율수행대법회’, 10-12월 ‘부처님의 제자와 행복한 삶’을 주제로 광주에서 ‘빛고를 불교아카데미’를 개최한 본사는 이번엔 봉선사 경전법회까지 열므로써, 선과 계율에 이어 경전에 대한 불자들의 안목을 넓히고 수행과 불교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제고하고 있다.

강설대법회 법문과 질의응답은 봉선사 홈페이지(bongsansanet)와 부타뉴스(buddhanews.com)에서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문의(031)527-1951~2, 1956

임연태 기자 yilm@buddhapia.com

제12회 신행수기 공모에 동참하세요

원고지 30매...12월 16일 마감

불자들이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 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수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귀중한 신행수기 공모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접수처 :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마감 : 2006년 12월 16일 ■ 당선작 발표 : 2007년 1월 1일자 부타뉴스
- 문의전화 : (02)2004-8241 ■ 이메일 접수 : bypark@buddhapia.com
- 시상 부문
 - 대상(우마상) · 우수상(본지 사장상)
 - 특별상 -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상, 태고종 총무원장상, 천태종 총무원장상, 관음종 총무원장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신수회장상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부상-행운의 금(최고 10돈) 열쇠를 드립니다.

청소년프로 40%

신행정보센터 참여도 분석

조계종 신행정보센터에 게시된 프로그램 중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계종 포교원이 8월 30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신행정보센터를 운영한 뒤 프로그램 참여 연령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어린이 26%, 청소년 13% 등 어린이·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40%에 이르렀다. 또 지난 5년간 150여개 사람이 신행정보센터를 이용했으며, 합천 해인사가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게시했다.

남동우 기자



크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보은정사 회주 원법 스님



도반의 향기 17면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시방세계 9면
봉녕사 불복장석

복지사각지대의 복지사 4면

지용·도안 스님 입적 14면
수덕사 '지심귀례...'展 23면

정기국회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조계종 환영...관람료주지회의 열어 대안 모색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9월 1일 국회에서 환경관련 협의회를 열고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입장료폐지는 시기의 문제만 남았을 뿐 사실상 기정사실화 됐다.

이날 회의는 이치범 환경부장관과 조계종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당정은 1일부터 열린 제262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안은 70명의 의원들이 서명발의 해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제종길 위원장은 “서민들의 휴식 공간인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폐지해 연간 2600만명에 이르는 이용객의 입장료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며 “입장료 폐지로 인한 입장객의 급격한 증가와 국립공원의 훼손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 대변인 동선 스님이 확실장은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는 조계종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조만간 관람료사찰 주지회의를 열어 국립공원입장료폐지 뒤 관람료문제에 대한 대안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2006년 한국불교박람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불교 최대규모의 전시회와 함께 하고 싶다면
불교계의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을 원한다면

2007한국불교박람회에 참여하십시오

2007한국불교박람회 2007. 3. 22 ~ 25 / 서울무역전시장
문의 : 2007한국불교박람회사무국 TEL 02-706-3493 www.bexpo.org